

<2022년 9월 25일 주일말씀>

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 자들과 이기고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전 초>

- ▶ 먼저 - 오늘의 핵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 주기 위해 간단히 전초하겠습니다.
- 구약에서 신약까지 6000년의 구원 역사를 보면,
선과 악이 싸웠을 때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선이 지고 끝나는 역사’는 결국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와 사명자와 하늘의 편〉이 ‘사탄과 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온 역사였습니다.

- 〈악〉은 ‘악’과 함께하며 ‘선’과 싸우고
〈선〉은 ‘선’과 함께하며 ‘악’과 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구시대〉는 ‘구시대인들’끼리 함께하며 ‘새 시대’와 싸우고
〈새 시대〉는 ‘새 시대인들’끼리 함께하며 ‘구시대’와 싸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자기 뜻과 방향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며
‘자기 뜻과 다른 사람들’과 싸우며 자기 뜻을 이루어 왔습니다.

- 신약역사가 오니,
〈구약의 유대 종교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뜻’이 다르다고 싸우며 역사를 펴 왔습니다.

이 시대도
〈새 시대〉와 〈구시대〉는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뜻과 방향이 다르다며 다투고 싸우며 역사를 펴 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이제 -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핵심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성구 자막1>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 본문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로 그가 <한 나라를 통치하러 온 왕>이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 되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항상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사탄과 악’을 이기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행하시고,
<성자>께서 예수님의 몸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니
<하나님께 부름과 택함을 받고 온 자들>,
<진실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 이 시대도 <성삼위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의 몸이 되어 행하는 사명자>와 일체 되어 행하면, 이깁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펴시든지,
시대마다 <사명자들>을 보내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
<사탄>과 <사탄과 하나 된 악>은
항상 ‘보낸 자들’과 겨루며 자기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니 다 이기고 이겼습니다.

- <하나님 편, 선의 편, 예수님 편>은
악과 싸우지 않고 ‘구원의 역사’만 해 나가는데도
사탄과 악은 항상 ‘선의 편’을 싸우는 대상으로 두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악의 편>은 결국 질 것을 알면서도 싸웁니다.
<선의 편>은 결국 이길 것을 알지만, 싸우는 것이 힘듭니다.
이 싸움에서 악한 자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의 편>이 자꾸 ‘선의 편’을 넘어뜨리려 하니,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의 싸움>은 ‘선의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싸움’입니다.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 자신과 섭리사를 점검하여 온전히 할 것을 찾아 온전하게 하고,
 - 삼위와 예수님을 더욱 부르며 가까이하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서

오히려 섭리사의 충성자들과 사명을 하는 자들을 비방하며
자꾸 이런 말 저런 말로 섭리사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점검>과 <온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할 때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섭리역사는 지난 44년 동안
항상 사탄과 악과 ‘선한 싸움’ 을 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항상 이겨 왔습니다!

성삼위와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 선생님이 21년 동안 산 기도를 할 때도,
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며 배울 때도,
사탄과 악은 늘 사람을 쓰고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하여 다 이겼고,
시대 말씀을 다 배우고 나와서 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늘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 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며 왔습니다.

그러니 사탄과 악은 또 막고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몰라서 그러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니 그러합니다.

그러나 삼위와 예수님이 함께 행하시니,
결국 이기고 이겨 왔습니다.

-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할 때 각종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
거기에 ‘사탄과 악’ 이 꼭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위축되거나 쓰러지지 말고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와 함께함으로 모두 이기고 이겨야 됩니다.

- 우리는 그동안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믿고
시대 복음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명자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의 영>과 일체 되어
성령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탄과 악과 무지의 세계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개인·가정·민족적으로 ‘시대 복음’을 전해 주어
하나님과 주를 섬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 다시 오신 성자와 예수님의 영이
시대 사명자와 우리를 ‘그 육신’으로 삼고,
또 ‘신부’로 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왔으니
이것이 크고도 큼니다.

<인간 최고의 희망>을 이룬 것이고,
<성삼위와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능력과 힘’ 으로
사탄과 악과 싸우며 이겨 나가면 됩니다. 아멘.

- 중고등부들도 전에는 “어리다. 커야 할 일을 하지.” 했지만,
코로나의 시작부터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계속 가르쳐 나가니
배운 10대들은 정신도 생각도 많이 성장해서
커서 할 일을 지금부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엎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성장과 함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과 악과 모르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입니다.

저마다 성장 속도가 다를 뿐이니,
모두 ‘배움과 성장과 변화’ 를 두려워하지 말고,
옆의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잘 크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탄과 악과 모르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입니다.

- 자기가 배워서 알고, 알았으면 책임을 하며 충성으로 행한다면,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학부도, 청년부도, 가정국도, 장년부도
저마다 이같이 열심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다음은 -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여덟 가지로 핵심만 말씀해 주겠습니다.

- 첫째, <열심을 내어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 둘째, <각종 유혹과 꾀를 물리치고, 자신의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 셋째, <복음을 전하여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육과 영에게 축복이 옵니다.
- 넷째, <개성대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놀지 말고, 모두 함께 돕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 다섯째,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진정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 여섯째, <섭리사의 누구든지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마다 잘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의 지체’ 같아서
누구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가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 일곱째, <신앙의 일뿐 아니라 육에 해당되는 일들도
저마다 놀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행하고,
경제를 잘 운영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 여덟째, <어려운 틈을 타서 충성자들을 비방하지 말고
자기와 섭리사를 점검하며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 이외의 것들은 각자 자신이 찾아서 행하기 바랍니다.
<찾아서 행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할 일을 찾으려면 써서 양팔에 붙이고 다니면서
행한 것은 떼 내고
하지 못한 것이나 했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은
계속 붙이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섭리사에서도 눈에 띄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갈고닦고 긴긴 세월 몸부림을 치면서 행한 자들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 다음은 -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주의 뜻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 첫째, 오늘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영접하여 신부가 되어 사랑하고,
그로 인해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고,
<시대 사명자>까지 일체 되어 살면
항상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고 삽니다.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희망으로 이겨 가는 것입니다.

- 둘째,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성구 자막2>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와 <예수님>, 그리고 <시대 사명자>를 믿음으로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겨 가는 것입니다.

- 셋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성구 자막3>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략)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 넷째, <민수기 14장 6-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긍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긍정적으로 원망과 불만 없이 갔기에
그 험난한 여정과 앞이 보이지 않은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까지 이기면서 온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망과 불만 없이
전능하신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를 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함으로 우리도 <1000년 새 역사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또 이깁니다.

- 다섯째,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면서 온 것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 때 서로 위로하고 돕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 되어 이렇게 하면,
또 이깁니다.

- 여섯째,
지금까지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도하고,

삼위께 찬양으로, 각종으로 영광 돌리며 역사를 펴 왔기에
어려움을 이기고,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기며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깁니다.

- 어떻게 해야 절대 이기는지,
나머지는 더 생각하며 행하기 바랍니다.

할 것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더욱 감동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 다음은 -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지’ 말씀하겠습니다.

- 첫째,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성구 자막3>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이시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시대에 다시 와서 주는 ‘시대 말씀’ 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천국>에는 ‘생명나무 열매’ 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의 영들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다시 오신 주와 일체 된 신부들>에게 해당됩니다.

- 둘째,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성구 자막4>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첫째>는 ‘육’ 이요, <둘째>는 ‘영’ 입니다.

<영>이 해를 받지 않으면 ‘천국’ 이나 ‘황금 천국’ 으로 갑니다.

- 셋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성구 자막5>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신약 말씀이 만나’ 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 시대 말씀이 만나’ 입니다.

<흰 돌>은 ‘신약 때 흰 돌이 되신 예수님’ 을 말하고,

<새 이름>은 ‘새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 을 말합니다.

정말 ‘받는 자’ 밖에 모릅니다.

모두 알려 줬으니, 맞고 행하기 바랍니다.

- 넷째,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성구 자막5>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주의 일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역시 ‘행하는 자’ 만 압니다.

- 다섯째,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성구 자막6>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면 <이긴 자>는
모두 ‘깨끗하고 빛나는 흰 옷’ 을 입고 다니고,
천국이나 황금 천국에서도 ‘빛나는 흰 옷’ 을 입고 다닙니다.

반면 <진 자>는 영계에서 ‘어두운 검정 옷’ 을 입고 다니고,
사탄도 악도 그러합니다.

육의 세계에서도 ‘자기 육과 혼’ 이
자기 영의 주관을 받고 삽니다.

-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며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 여섯째,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성구 자막7>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이긴 자들>은 섭리사에 남아 있고, <진 자들>은 나갔습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섭리사 전의 기둥들’ 이 되고,
그 이름을 기둥에 ‘기록’ 해 왔습니다.

<이긴 자>는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사명자의 주관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는 ‘패한 자들’ 입니다.

-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와 일체 된 자들>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상을 주어 영원히 빛나게 해 줍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과 같이 함으로
과거에도 이겨 왔으니,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시대 사명자>와 일체 되어 행하면 이긴다.

항상 승리다. 이기고 또 이긴다.” -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 사탄과 악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과거>같이 ‘현재’도 ‘미래’도 동일합니다.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멘.